

약물에 의한 담즙정체성 간염에서 steroid 치료의 임상적 의의
순천향 의과 대학 천안병원 내과학교실
오영수*, 정일권, 김홍수, 박삼훈, 이문호, 김선주

목적 : 약물로 인한 담즙정체성 간염의 치료는 보존적 치료가 원칙이지만 일부 연구에 의하면 황달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에는 steroid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약물로 인한 담즙정체성 간염 환자에 있어서 steroid 치료에 반응 효과, 그리고 steroid 치료에 반응하는 군과 반응하지 않는 군에 임상양상 및 steroid 치료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저자들은 1995년 1월 15일부터 1998년 8월 19일까지 순천향 천안병원에서 약물로 인한 담즙정체성 간염으로 진단받은 28명의 환자에서 약물 중단이후 보존적인 치료를 하였으나 한달이상 황달이 지속된 18명에서 steroid를 7일이상 투여하여 total bilirubin치가 20% 이상 감소한 경우를 반응군으로 정의할 때 무반응군과 반응군 환자사이에 hypersensitivity 반응을 의미하는 피부발진, 발열, 오한, 관절통, eosinophilia 유무와 자가면역항체 보유여부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1) 18명의 steroid 투여군중 11명의 환자에서 반응을 보였다(61%).

2) 반응군 11명의 환자중 3명에서 total bilirubin치가 50%이상 감소하였다(16.7%).

3) 반응군과 무반응군 환자에서 피부발진, 고열, 오한, 관절통, eosinophilia 유무등과 같은 hypersensitivity 반응과 자가면역항체 보유유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4) 치료환자군중 불내인성 고혈당이 있던 환자 1예에서만 steroid치료의 부작용으로 당뇨가 발현되었다.

결론 : 원인이 되는 약물복용을 중단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황달이 지속되는 담즙정체성 간염의 치료에 있어서 steroid 치료는 효과가 있는 치료방법으로 생각되며 향후 이에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한국인에서 만성 C형 간염바이러스 감염의 자연경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배시현*, 변병훈, 최종영, 윤승규, 박영민, 이영식, 이창돈,
차상복, 정규원, 선희식, 박두호, 김부성

목적 C형 간염 바이러스(HCV) 감염은 B형 바이러스 감염에 비하여 간경변증과 간암으로 진행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추적 관찰기간이 충분하였던 HCV감염 환자에서 HCV 감염 후 자연경과를 후향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방법 대상은 1983년부터 1998년까지 강남성모병원에 내원하여 혈청학적, 조직학적 (간조직 검사 58예)으로 HCV 감염으로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1년 이상 정기적으로 추적관찰이 가능하였던 139명 (남자 85명, 여자 54명, 평균 연령 49세, 범위: 19-76세)이었고, 이중 만성 간염 116명, 간경변증 18명이었다. 대상환자의 나이, 성별, 가족력, 수혈력, 수술력, 음주력, 흡연력, 당뇨병, 만성신부전, 간조직검사 소견, 만성간염에서 간경변증, 간암 발생시까지 기간, 간경변증에서 간암 발생까지 기간, 진단시 혈액검사소견을 조사한 후, SPSS(version 7.0)통계적 분석 방법으로 이용하여 자연경과 및 이에 관련된 인자를 알아보았다.

결과 관찰기간은 평균 61개월 (범위 12개월- 192개월)이었고, 질환별 평균 연령은 만성 간염49세, 간경변 55세였고, 수혈과 수술 경력이 있는 사람은 각각31.3% (31/99) 와 36.7% (40/109) 였다. 만성 간염 환자 116명중 12.1%(14/116)에서 평균 73개월 후 간경변증이 발생하였으며, 만성간염 진단 2, 5, 10년 후 간경변의 연간누적발생율은 각각 2.5%, 6.0%, 10.3% 였다 (연간평균발생율 2.0%). 116명의 만성간염중 3명(2.5%)에서 평균 103개월 후 간암이 발생하였고, 4.5년, 6.5년, 15년 후 간암 누적발생율은 각각 0.9%, 1.8%, 2.6% 였다 (연간 평균 발생률 0.3%). 간경변 환자의 58.5% (10/18)에서 평균 43 개월 후 간암이 발생하였고, 진단 후 2, 4, 13년 후 간암 누적발생율은 각각 23.5%, 47.1%, 58.8% 였다 (연간 평균 발생률은 14.7%). 만성간염에서 간경변증으로 진행과 관련된 인자는 alfa-fetoprotein, 만성 간염에서 간암발생과 관련된 인자는 연령, ALT이었고, 간경변으로 부터 간암의 단계에서는 연령, ALT, 혈소판 이었다 ($P < 0.05$).

결론 HCV 감염 후 간경변증, 간암 발생시까지 평균기간은 각각 72및 113개월이었고,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과 관련성이 있는 인자는 진단시 연령, ALT, α -FP, 혈소판이었다.